

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

2014. 1. 23
(14-7호)

KB 지식 비타민

: 국내 금 현물 거래소 설립의 의미

- 국내 금 거래 현황
- 국내 금 현물 거래소 설립
- 국내 금 관련 투자상품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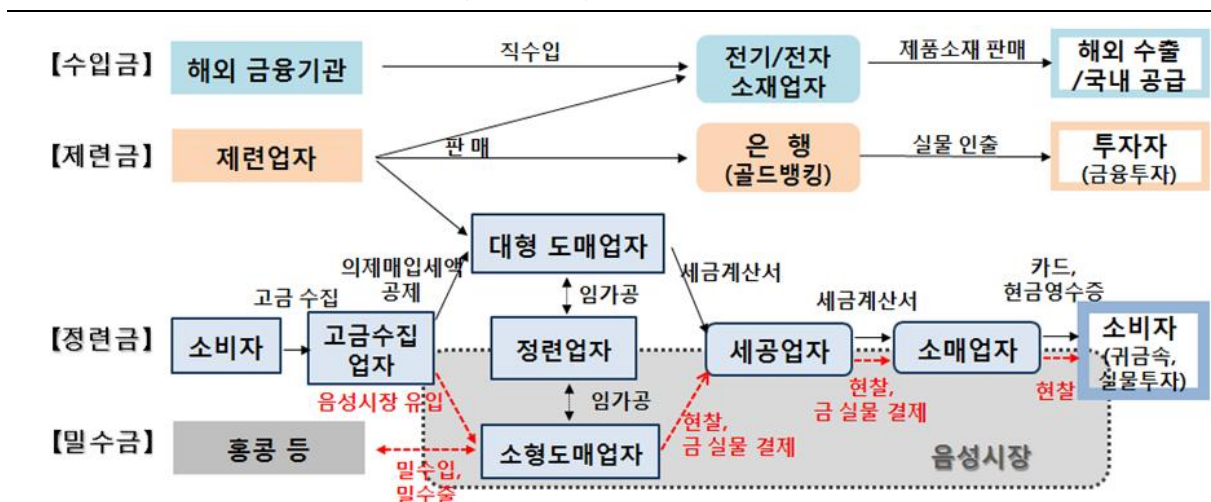
국내 금 유통시장의 약 60~70%가 비정상 유통으로 추산되는 가운데, 정부가 추진 중인 금 현물 거래소가 설립되어 활성화된다면 세금 및 수수료 측면에서 여타 금 관련 투자상품보다 효율적인 대안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.

■ 국내 금 거래 현황

○ (거래 규모)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~110톤 내외로 추산

-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(현물)은 금광석으로부터 제련한 금이 약 5%, 외국에서 수입한 금이 약 10%이며, 나머지 85%는 소비자들이 되관 금제품을 녹여 만든 정련금(고금)임

[그림 1] 국내 금 유통 구조



주: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소비자 등 비사업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자가 과세사업자에게 고금 매출시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매입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(08년 도입)
자료: 금융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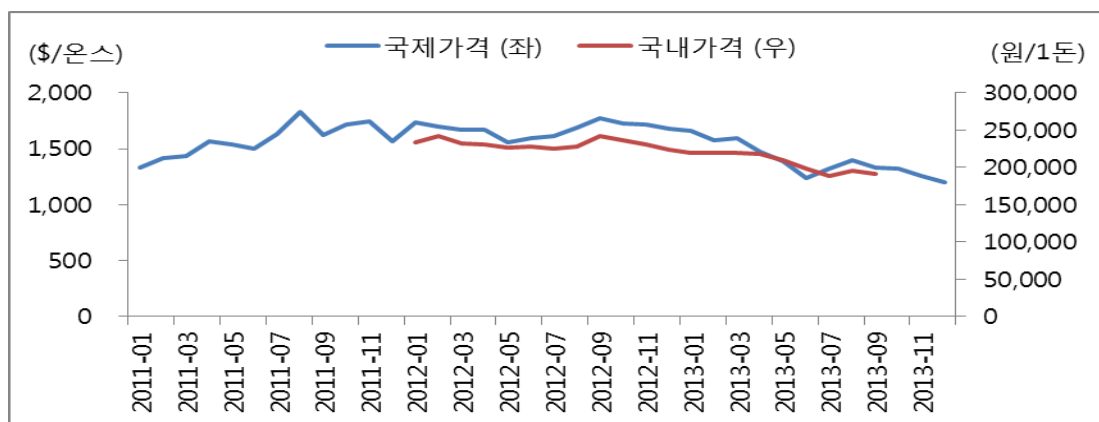
[표 1] 국내 금 유통 규모 추정

제련금	수입금	정련금(고금)	밀수금
약 5 톤 (50 톤 생산, 45 톤 수출)	약 10~15 톤 (가공 후 再수출물량 제외)	약 85~90 톤 (정상거래 20~30 톤)	추정불가
제련업자의 구리·아연광석 제련과정에서 생산	반도체 등 전기/전자 소재업자의 생산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서 수입	고금을 수집하여 도매업자가 정련업자에 위탁 생산	홍콩 등으로 밀수입/밀수출

주: 고금은 사람들이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던 금이 시중에 판매되어 귀금속 원재료 등으로 쓰이는 금
자료: 금융위원회

- (유통 구조)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·수입금·(일부)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·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
 - 업계는 수입·제련과정을 통한 정상유통이 30~40%, 무자료 거래 등 비정상 유통이 60~70% 수준(55~70톤)인 것으로 추산
- (산업 수요) 한국의 금 산업 수요는 세계 금 산업 수요의 약 10% 수준
 - 2012년 한국의 금 산업 소비량은 40.2톤, 치과 소비량은 2.4톤에 달함
- (거래 가격) 국내 금 시세는 공식 통계가 없으며, 거래 가격은 도매업체가 국제 금 가격에 환율을 반영해 정하는 도매가격에 유통비와 영업마진을 더해 결정됨
 -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련금(고금)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업자들의 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임
 - 소비자들이 금 매매시 일정한 품질 인증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 가격이 제각각
- (국제 금 시세)¹ 국제 금 가격은 지난해 28% 하락해 32년만에 최악의 연간 하락률을 기록했으며, 올해 금 가격은 일부 긍정적 부문도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과 달러 강세를 이유로 다소 회의적 전망
 -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된 금의 양이 지난해 1~10월까지 1,263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, 일본에서는 금이 물가상승의 헤지 수단으로 급부상
 - 세계 2대 상품지수인 DJ UBS 상품지수가 금편입 비중을 10.82%에서 11.53%로 확대함에 따라 향후 세계 연간 금 생산량의 2.2%(197만 온스)를 추가 매입 전망

[그림 2] 국내외 금 시세 추이



주: 국내 시세는 세 개의 원자재 유통업체를 임의 선정하여 표준화시킴
 자료: Datastream,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(WJRC)

¹ KB지식비타민, 국제 금 수요 특징 및 국내 금투자 현황, 13-106호 참조

■ 국내 금 현물 거래소 설립

○ (배경) 금 관련 음성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

- 정련금(고금)의 음성거래로 인한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천억원 안팎으로 추산
-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은 순도 등 품질이 공인되지 않아 저품질(함량 미달) 금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
- 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편차가 크고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소비자 불만 지속 발생
- 표준화된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부재, 금의 거래투명성에 대한 불신 등이 귀금속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

[표 2]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산내역

전체 고금매입규모(①)	3.4 조원~4.5 조원
매입신고액(②)	1.2 조원
음성거래규모(①-②)	2.2 조원~3.3 조원
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(음성거래규모의 10% 가정)	2,200 억원~3,300 억원

자료: 금융위원회 (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집계치 등을 기초로 추정)

○ (형태)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

-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(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)와 한국예탁결제원(보관과 인출)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
- 매도자가 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고, 매수자도 매수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
- 회원으로서 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 의무 부과
- 거래소·예탁원 등이 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필요시 국세청·관세청 등과 거래정보를 공유하여 탈세를 차단하고 장내거래를 활성화



- (시장 참여자)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,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 가능
 - 금 관련 사업자: 제련, 정련, 수입업자, 도·소매 등 유통업자, 세공업자 등
 -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,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,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용 가능
- (매매 방식)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(1~10g)으로 설정
 - 다만,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kg 단위로만 허용
- (세제 지원)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등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
 -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 감면
 - 금 사업자들의 현물 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(소득세) 공제 혜택 부여
 - 장내거래의 경우 부가세가 비과세되고, 인출되는 시점에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물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
 -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 면제(한시적), 회원의 중개수수료 인하
- (기대효과) 투자자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금을 공개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유통화할 수 있으며, 금 관련 투자상품 중 세금과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
 - 금 현물시장을 통한 거래내역 확인, 부가세 부과 등에 따라 이후 유통단계에서 음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대
 - 골드뱅크는 금가격과 환율에 따라 예금 금액이 변동되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2010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되지만, 금 거래소를 통한 현물 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
 - 세계적 금 투자심리 약화로 초기 거래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과 부의 은닉, 증여 세나 상속세 탈루를 차단할 수단 등에서 일부 한계가 있음

■ 국내 금 관련 투자상품 비교

- 최근 국제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금 관련 투자상품의 인기도 하락
 - 은행권의 골드뱅킹 뿐만 아니라 금펀드 및 ETF 등 간접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도 크게 감소
- 금 투자는 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제공²
 -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며, 금융자산 및 여타 실물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분산에 유용
 - 통화가치 하락시 금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물가상승 위험에 대한 헤지가 가능하며, 일반 금융상품 투자에 비해 신용위험이 없고 유동성이 풍부함
- 금 실물 투자는 골드바 형태의 현물을 직접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직접 보유할 수 있지만, 부가가치세와 거래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높음
 - 금 실물 거래 대상으로는 금지금(gold bar)과 금화(gold coin)가 있음
 - 금지금(gold bar)은 통상적으로 순도가 최소 99.5%, 무게는 최소 1그램에서 최대 400 트로이온스(troy ounce = 31.1g)까지 다양
- 골드뱅킹은 실물거래 없이 원화를 계좌에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와 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통장에 적립해주는 상품³
 - 실물거래 없이 금을 사는 효과가 있으나, 달러로 구매하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고 별도의 환헤지가 없어 환변동성에 노출
 -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(15.4%)가 부과되며, 현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(10%) 발생
 - 금 펀드는 금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, 금 선물에 투자하는 파생형, 그리고 금 관련 ETF상품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형이 있음
 - 주식형상품은 금 가격보다 주식시장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음
 - 파생형 펀드는 금 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, 금 선물 투자에 필요한 증거금

² 하나금융정보 제 131호, 금 거래, 유망한 투자 기회, 2010년 참조

³ 금계좌는 할당계좌(allocated account)와 비할당계좌(unallocated account)로 구분: 할당계좌는 계좌별로 보유 금을 실물로 할당하여 개별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은행이 관리하는 경우인데 비해, 비할당계좌는 계좌별로 실물 금을 할당하여 보관하지는 않고 계좌주 요구 시에만 실물을 확보하여 제공

을 제외한 금액은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게 되므로 실제 금가격과 펀드 수익률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

- 금 ETF 등 재간접형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투자수단으로,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높아 환매도 자유로움

[표 3] 국내 주요 금 투자 상품 비교

	금 거래소	골드뱅크	역내 금 ETF	역외 금 ETF	금 선물
매매차익 과세	×	○ (배당소득세)	○ (배당소득세)	○ (양도소득세)	×
종합과세	×	○	○	○ (분류과세)	×
기타	실물인출시 VAT 10%	실물인출시 VAT 10%	-	-	기본 예탁금 필요
수수료	-	예금시 1% 만기시 1% (현물 인출시 2%)	수수료 1% 이하	-	0.01% 수준

주: 분류과세란 퇴직소득, 양도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

자료: 조세연구원, KRX

○ 금 구조화상품은 금가격을 준거자산으로 삼는 파생결합증권(DLS)이 대표적

- 금 DLS는 통상 원금보장형으로 원금손실 위험에 민감한 투자자를 대상
- 원금 비보장형이라도 최대 손실을 약 5% 정도로 제한시킴
- 증권사 주도로 출시되며 만기는 보통 1년

○ 한국거래소에 금 선물이 표준형과 미니형으로 상장되어 있으나 아직은 유동성 미흡

- 표준형 선물이 1999년부터 상장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2010년 9월 미니형을 추가로 상장
- 미니 금선물은 기본예탁금이 500만원으로 거래 단위는 100g임

<연구위원 김주환(joohwan.kim@kbfg.com) ☎2073-5734>